

장흥군 인구 만큼 전남 귀농·귀촌

지난해 4만607명 유입 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에 '단비'
귀농 2909명·귀촌 3만7698명 ... 道, 정착지원에 총력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직면한 전남에 지난해 4만명이 넘는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한 개 군(郡)단위 인구가 새로 유입된 것으로, 귀농·귀촌 정책이 전남의 '인구 절벽' 위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일 전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림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귀농·귀촌 유지 실적결과 전남은 4만607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006명이 늘어난 수치다.

귀농 인구는 전국적으로 1.9% 감소했으나, 전남은 0.1% 증가한 2909명(1925가구)을 기록했다. 경북이 3489명(2316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두 번째였다. 전남으로 귀농한 인구의 지역별 분포로는 수도권에서 37%, 광주에서 3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귀농해 채소(43.6%), 과수(31.2%), 특용작물(27%)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귀촌 인구도 크게 증가했다. 전년에 비해 2.7% 증가한 3만7698명(2만8273가구)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남지역 귀농·귀촌 인구를 합하면 4만607명으로, 이는 한 개 군 인구에 해당한다. 귀촌 인구는 수도권인 경기도가 8만95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순이었다.

이처럼 전남의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전남도와 시·군에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수도권, 부산 등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로 수시로 참가해 전남의 매력을 알린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설명회, 예비 귀농인 대상 시·군 팸투어도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남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세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도는 귀농인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 수요 증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인구 절벽'에 직면한 전남의 인구 늘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귀농·귀촌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전남 농업기술원장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농촌에 활력도 불어넣고 지역 인구 늘리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귀농인들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강화와 선배 농업인 단체와의 멘토-멘티 체결, 작물 재배 기술지원 교육, 이동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현장 방문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반갑습니다" 남북 통일농구 경기 취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기자단이 3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밝은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자에게 신분 확인을 받고 있다. 남북 통일농구는 통산 네 번째이자 15년 만이다. /연합뉴스

남북 통일농구 대표단·선수단 101명 방북 4~5일 평양에서 경기 ... 김정은 참관 주목

남북 통일농구에 참가하는 남한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101명이 3일 평양에 도착했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은 이날 오전 10시 3분경 군 수송기 2대에 나눠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11시 10분경 도착했다.

공항에는 북한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마중을 나와 방북단을 맞았고, 공항 귀빈 회견실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과 환담을 나눴다.

조 장관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회가 깊다"면서 "선수단, 대표단만 오는 게 아니라 남측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 또 화해 협력을 바라는 마음을 같이 저희가 안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평양 주민들, 북측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길우 부상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직접적 발기와 북남 수뇌부들의 깊은 관심 속에 평양에서 진행되는 북남 통일농구경기에 남측 농구선수단을 이

끌고 통일부 조명근 장관이 대표해서 여러 일행분들이 평양에 온 데 대해서 열렬히 축하한다"고 환영했다.

원 부상은 "제가 벌써 남측 성원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만나볼수록 정이 통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도 강해지는 걸 느끼게 된다"면서 "북남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대동로를 열어가는 데서 체육이 앞장선 데 대해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단은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한 남녀 농구선수단 50명과 정부대표단 5명, 정부지원단 15명, 취재기자단 10명, 중계방송팀 20명, 장내 아나운서 1명 등 모두 101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대표단은 조 장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안문현 총리실 국장,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이다.

남북 통일농구는 통산 네 번째이자 15년 만이다. 1999년 9월 평양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또다시 열렸고, 2003년 10월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조 장관은 평양에서 북측고위급회담 상대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고위인사들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농구장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기로 환담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농구경기는 4일 혼합경기, 5일 친선경기를 남녀 선수별로 개최해 모두 4차례 진행되며, 방북단은 6일 귀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 신설

민선 7기 조직개편 추진

일자리·지역현안 해결 의지

광주시가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실로 격상하고, 군공항이전 추진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3실6국3본부에서 4실5국3본부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4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전남도 역시 일자리정책본부 등 1개국 4개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일자리에 방점을 찍고, 신속한 지역현안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용섭 시장이 3일 주재한 준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정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일자리경제실 산하에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두고, 시장 또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인사정책관을 둘 예정이다. 이 시장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사를 챙겨 과장,

실국장 등 간부직원의 긴장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전략산업본부는 전략산업국이 되고, 한시조직으로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가 신설된다.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공항 이전을 결정한 이상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갈 예정이다. 사회통합추진단은 일자리경제실로 통합된다.

시는 또 이 시장의 공약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위해 이날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안에는 일자리위원회 기능,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 역시 조직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도에 따르면 현재 10실국, 50과, 19직속기관, 2사업본부, 7사업소의 행정조직에 1국, 4과를 신설해 11실국 54과 체제로 변경한다.

국장급 임시조직이었던 일자리정책실을 일자리정책본부로 공식 편입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정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함에 따라 본부장은 최선임 국장이 맡아 일자리 관련 업무를 총괄·컨트롤하게 된다.

또 인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로 운영하던 인구정책기획단을 격상, 인구정책본부(4급 준국장)를 신설한다. 인구정책본부장은 2030년까지 200만 도민 회복 임무를 맡게 된다.

10만 인제 키우기 프로젝트 등을 담당할 희망인재육성국을 신설하고, 도민의 사회적 역할을 수용하는 사회적경제과, 산림휴양과, 섬해양정책과 등 신설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오는 10월 전남도의회 제출,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3일 정부부지사, 도민소통실장, 서울사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강진 여자 초등생 연쇄 실종 18년
-경찰, 사건 해결 실마리 찾았다 ▶6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WITCH TO EQ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1t, 복합회전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